

42대문과대학생회 집행부 모집! &소식지팀

:: 집행부 모집? ::

42대문과대학생회가 2005년 문과대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집행부란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문우인들과 마주치고 대화하며 학생회의 사업에 그/녀들의 삶을 풀어내는 역할이랍니다. 따라서 그 책임감도 막중하겠지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또 문과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것 같아요. 올 한해 문과대 학생회실 안과 밖에서 열심히 뛰어들어달라 42대문과대학생회의 집행부를 공개 모집 합니다.

:: 소식지팀 모집? ::

자~ 집행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2대문과대학생회에는 '소통국' 이 있습니다. 환영회나 오테때 영상물 보셨죠?^^ 물론 소통국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집행부를 지원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특/별/히 소식지팀은 따로 뽑고 있습니다. 소식지란 앞으로 1년간 문과대의 소식들을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사용을 통해 문과대에 알리고 다시 열린 귀로 듣는 매체예요. 한마디로 문과대 신문이죠^^ 42대문과대학생회의 소식지팀을 공개 모집 합니다.



지원하시려면 : 학생회실로 찾아오시거나,
2005Q@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immun.net 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02)2123-3647 로 전화를 주세요^^

2005년 연세 문과대 신입생 수련회

나를 표현하는 새로운 세상 새내기 스탠바이 Q!



여성주의 새터나기

그 첫걸음을 만들어 나가는 작은 자료집

42대 문과대 Q 학생회

—평범학생회에 드립니다.

▣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일정표 ▣

시간/날짜	21일	22일	23일
7:30~9:00		기상 및 아침 식사	기상 및 아침 식사
9:00~10:00		문반 별 시간	문반 별 평가 및 정리
10:00~11:00		새내기 마당	퇴소식
11:00~12:00	집결 및 내규 논의		출발
12:00~13: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13:00~14:00	새터 출발	문과대 전체 마당	
14:00~15:00	~		
15:00~16:00	새터 도착	문반 별 시간	
	입소식		
16:00~17:00	입방 및 문반 별 시간		
17:00~18:00		문과대 전체 마당	
18:00~19:00	저녁 식사		
19:00~20:00			
20:00~21:00	문과대 전체 마당	문과대 전체 마당	
21:00~22:00		문반 별 행사 및 뒤풀이 취침	
22:00~	밴드 공연 문반 별 행사 및 뒤풀이 취침		

-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곳곳에 붙어있는 소개 자보를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바로 「당신」이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Contents

〇〇〇

나의 새내기 되기

여성주의 새터나기란?

모두가 자유로운 새터나기 - 반성폭력 내부규약

선배로부터 온 편지- 화요일, 그녀들과의 만남

전체 여성노동자의 70%, 비정규직

Something more! 이런 곳은 어때요?

3.8 여성의 날 함께 해요!



■ 나의 새내기 되기

XX년 2월 5일

난 드디어 04학번이 되었다.

그 힘들고 지겨웠던 고등학교 생활을 이겨내고 이제 당당한 대학생이 되었다.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대학 생활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된다.^^

xx년 2월 26일

난 어젯밤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대학생활을 같이 하게 된 동기들, 선배들과 함께 '새터'를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고 버스를 타려는데 선배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선 남학생들이 먼저 타고 여학생들은 자기가 맘에 드는 남학생 옆에 가서 앉아요. 자연스럽게요~"

즐거워하는 선배들과 조금은 굳어 있는 표정의 새내기들을 보면서

'아..대학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불편하고 싫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했다.

몇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강원도에 있는 수련원에 도착했다.

우리 반은 몇 개의 조로 나누어져서 숙소를 정하고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나도 짐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는 오늘 처음 보는 남자 선배가 옆에 있는 남자 새내기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재는 폼 아닌 거 같고 저쪽 재는 어때?"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재는 몸매가 영 아니에요"

난 너무 놀랐다.

여중, 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저런 남자들의 농담에 당황했던 것도 있었지만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이 저런 식의 사고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에 솔직히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 하지만 처음 보는 동기들 앞에서, 앞으로 같이 생활할 선배들 앞

에서 나의 불만을 얘기할 수는 없었다.

xx년 2월 27일

어제의 놀라움과 당혹감은 오늘도 계속 되었다.

남학생들은 끊임없이 여학생들을 경매장에 나온 물건처럼 품평회를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은 특히 뒤통이 시간에 화가 났다.

여학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였다.

"너희들도 이제 대학생들이야, 알지? 이 정도는 기본이니깐 꼭 마셔~"

옆에서는 계속 "원샷, 원샷"을 외쳐대고 있었다.

난 정말 마시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망친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 몇 잔을 마시고 분위기가 한참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때 한쪽에서 한 남자선배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선배들이 뒤이어 따라 불렀다.

"내게 뽀 자라 물개 같은 정력 내게 뽀 자라 물개 같은 정력 내게 뽀 자라 물개 같은 정력 주소서~"

난 정말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숨고 싶어졌다. 내 옆에 있던 여학우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 새내기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흥을 맞추고 있었다.

xx년 2월 28일

난 '새터'를 다녀오고 나서 걱정에 쌓이기 시작했다.

지난 2박 3일 동안의 첫 대학 생활은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난 남학생들의 농담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고,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선배들도 싫고, 술도 편하게 마시고 싶은데..'

앞으로 내가 이런 곳에서 대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다가올 새내기 대학생활이 너무 걱정되고 부담된다.

■ 여성주의 새터나기란?

아직 새터(=새내기 새로 배움터, 신입생 수련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성주의라는 단어까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여성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각 가지 편향과 생각들이 지금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을 것 같아요.

새터는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생활하면서 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이미 대학생인 선배들을 보면서 대학 생활과 그 속의 삶에 대해 체득하게 되는 시/공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대학 생활의 축소판이자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사회화의 첫 장이죠^^ 그러하기에 새터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은 색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과 고민들이 고스란히 녹아내리게 되어 있고, 새내기들은 새터를 통해 자신의 대학생활을 그려나가게 되죠.

그럼 모두가 즐겁고 자유롭게 새터 기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 사이에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과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앞서 어느 새내기의 체험담처럼 새터 기간동안 버스에서, 술자리에서, 대화와 행동 곳곳에서 서로의 성적 차이로 인해 내 결의 누군가가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남이라는 성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통해 다 시금 여성과 남성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새터, 새로운 문과대 학생사회를 우리 2005년 새터에서부터 만들어 가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새터에 빠져 볼까요?ㅋ



▣ 모두가 자유로운 새터나기 - 반성폭력 내부규약

여성주의적으로 새터나기가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었어요?

아직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구나!' 하고 머리 속에 딱 와 닿기는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넓히고 여성주의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학교에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학생사회, 연세사회, 한국 사회를 재구조화 해 나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최소한의 약속으로 「새터 반성폭력 내부규약」이 있어요

- 여기서 잠깐!! 여성주의? 페미니즘? 도대체 그게 뭐가요??

페미니즘(여성주의)은 여성들의 눈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하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고통 받는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로지 남성들과 동등해지려는 일부 여성들의 '반(反)남성주의'적 의침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사회에 평등해있는 성차별주의에 맞서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성이기에 가사노동을 주되게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들, 남성이기에 힘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연함들, 여성이기에 성매매 시장으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들, 여성의 몸은 남성들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들, 그 모든 억압과 불평등에 맞서서 이제 우리 모두는 목소리를 모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여/남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새터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술자리 등의 활동 역시 우리 사회의 반여성주의적 문화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게임에서 과도한 스킨십이 필요한 벌칙을 강제한다거나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농담, 혹은 여학우를 상대화시켜 평가하는 모습 등은 새터에서, 그리고 대학생활에서 (안타깝게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적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반성폭력 내부규약입니다.

그러나 학생사회에서 여성주의가 이야기되고 반성폭력 내규가 제정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자치규약이 이렇게 한계적으로만 인식되면서, 여기면 처벌받는 규약으로만 남거나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은 성폭력, 이것은 성폭력 아님' 식으로 분절적으로 생각되기 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반성폭력 내규는 여성

주의적 고민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성폭력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성폭력에 대한 고민, 나아가 학생사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앞의 글에서도 계속 언급되어 우리를 원지 모르게 불편하게 했던, '성폭력'이란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성폭력=강간'이다? NO!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이 무엇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어떠한 윤리적 기준에서 판단통제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농담, 성기 노출, 음란 전화,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편견도 버려야 해요. 저항이 없었던 것은 그 상황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폭력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관계는 '동의'의 문제가 아닌 '자발성'의 문제이거든요. 하기에 여성의 'No'가 'Yes'로 받아들여지거나, 암묵적 동의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의 동의여부는 온전히 판단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폭력이 신체 접촉의 경중이나 정동에 따라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등으로 나누는 것이 성폭력을 기준을 짓는 것은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했다"고 피해자가 느꼈다면 이것은 성폭력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므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남녀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할 때, 피해자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해서 '피해자 주관의 인식'을 기초로 성폭력 사건 발생여부를 결정해요. (질문은 bangsung05@hanmail.net 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직접 살펴볼까요??

「새터 반성폭력 내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와 학생회가 정한 O.T. 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의 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자리이다. 신입생들이 대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맨 처음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새터이기 때문이다. 새터에서 신입생들은 그전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대학이라는 공간을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자각하게 된다. 또한 신입생들은 새터를 통해 대학이 가진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재학 생활 동안 지속될 인간 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렇듯 새터의 중요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새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신입생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그저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새터 내규는 한 성에 의해 다른 성이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인 동시에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새터 참가자 및 진행자들은 내규에 대한 사전 교양을 성실하게 진행해야 하며 치열하고 지속적인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 관념을 지적해 내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학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술자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언어나 행위
예) "아, 여자 후배들 좀 사이사이에 앉혀봐"
-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2) 전체 행사 및 공연 자리

-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예3) 00년도 모 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을 왜곡된 여성의 모습으로 여장하게 하여서 심사하고, 성적인 놀이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있었다.

예4) 00년도 모단대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연극을 하였다.

3) 생활 공간

- 공동의 공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문구, 사진,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01년도 모 동아리에서 여자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를 붙여 놓고 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였다.
-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나 그림을 사용하는 경우
- 공공장소나 여럿이 쓰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 고정된 성 역할에 의해 일의 분업이 강요되는 경우
예) 식사 준비나 방 청소를 할 때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강요하는 경우

4) 놀이 자리

- 신체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놀이를 하는 경우

예1) 00년도 모단대 새터에서 여왕벌 게임을 하였다.

예2) 02년도 모단대에서 다른 단대의 여학생 머리카락을 뽑고 립마크를 찍어오는 게임을 하였다.

예3) 02년도 모단대에서 무릎 앉기 게임을 하였다.

-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

예) 02년도 한 단대 새터에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정력가'를 부른 사건이 있었다, '젖소부인 엘리제' 등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경우

예) 00년도 모 단대 새터에서 '포르노' 영화 제목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1) 00년도 모 단대 오티 장소에서 아카라카 섹스 버전을 외치는 사건이 있었음.

예2) 00년도 모 단대 새터 때 '첫날밤에' 등의 게임이 이루어졌다.

5)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손이나 신체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동작을 하는 경우

-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모든 행위

6)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농담을 하는 경우

예) "열 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등의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을 하였을 경우

예) '애 잘 낳게 생겼군', '고속도로, 계란후라이, 건포도, 절벽, 젖소', '얼굴 값 한 다' 등의 표현과 같이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말

-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하여 언어폭력을 가하는 경우

예) 남성에 대해 - '기생 오라비 같다', '남자가 왜 그렇게 출썩거리냐?', '남자가 그런 일도 못하냐?',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등

여성에게 대해 - '여자가 그런 것도 못하냐', '여자가 힘이 세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 '넌 꾸밀 줄도 모르냐' 등

- 한 성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예)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한다', '여자와 복어는 사흘도리로 때려야 한다', '여자는 그냥 두면 기어 오른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삼종지도', '칠거지악', '여자가 제법인데', '여자는 순종이 미덕이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 등의 표현

7) 적대적 환경 조성

- 상대방의 몸을 훑어보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여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예) 일부러 휘파람, 교성, 침을 삼키는 소리 등 소리를 냄으로서 불쾌감을 주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쪽지나 편지,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다른 성의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한 경우

- 성적 고정관념 및 편견에 의한 차별적인 행위

예) 01년도 모 단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함.

8) 사이버 공간

- 각 과/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

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예) 커뮤니티 자료실에 포르노를 올린다거나, 게시판에 성폭력적인 글을 올리는 경우

3. 2차 가해에 관한 규정

1)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 성폭력 사건을 듣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경우

예) 01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반대표가 '별 일 아니다'라고 반응하고 은폐시키려 하였다.

예) '별 거 아닌 일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 가해자 주변에서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예) 02년도 모 단대 새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의 친구가 '나도 같이 있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2)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경우 동조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2차 가해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4. 대상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의무

- 새터에 참여한 모든 학내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새터를 준비하는 각 학생회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 주체 교양을 받아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새터에 참여하는 학생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새터 내규에 대한 교양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각 학생회는 새터 기간에 발행하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 전문과 내규 소개 글을 실거나 새터 내규를 위한 모임에서 제작한 내규에 관련된 자료집과 포스터를 배포하여야 한다.

- 각 단대 학생회는 새터 장소에 성폭력 신고함을 만들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학생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새터를 준비하는 주체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과문을 학내 공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6. 신고와 신고기구

-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여학생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은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 사건 신고는 새터 기간뿐만이 아니라 새터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신고와 관련된 시효 규정은 없다.

7.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경우, 성폭력 사실과는 상관없는 피해자의 용모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됨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반 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동아리연합회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나 과반 학생회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나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최소3인, 최대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는 가해자 처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단대에서 구성하며,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5) 대책위 위원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석이 된 대책위원의 소속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책위에 들어와야 한다.

10. 대책위원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1)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게 가한다.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보호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1. 가해 행위 및 2차 가해에 대한 징계내용

1)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 가해자 및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 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2)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내 지정된 장소에 공개해야 한다.

12.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정 : 2000. 2. 9

1차 개정 : 2003. 1. 28

개정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3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과대학 여성 주체 : 박상은 (010-7626-1210)

성폭력 사건 신고 메일 : bansung05@hanmail.net

성폭력 사건 신고나 내규와 관련된 질문 등

여성주의와 관련된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선배로부터 온 편지

화요일, 그녀들과의 만남

문설희(인문학부 졸업생)

길었던 설 연휴를 마치고 그녀들을 만나러 서울역으로 향했다. 오랜만의 만남이기도 하고, 새로운 일터로 출근하게 된 이후로 첫 만남이기도 해서 더욱 설렘이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

예전에는 늘 단정한 차림에 미소를 띤 차림의 그녀들을 보아왔기에 여성승무원들의 일이 고되고 힘들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기차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기억속의 그녀들은 광고속의 여성이나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그렇게 곱기만 한 여성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서울역에서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과의 만남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1년씩 재계약하는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철도청은 정규직은 90% 이상을 남성으로 뽑으면서도 계약직은 모두 여성으로 뽑고 있는데, 고용부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은 입바른 소리 한번 하지 못했다. 연말에 재계약 때 해고될까봐 몸이 아파도 병가 한번 내기 힘들었고, 한번 승무에 평균 15시간, 한 달에 많게는 300시간씩 기차를 탔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국 돌아온 것은 계약 해지 통보. 88명의 여승무원들 중에서 2년차 장기근속자만 골라 31명을 해고하겠다는 철도청의 결정을 그러나 그녀들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요일마다의 서울역 대합실에서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분노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과 그녀들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오래 근무했다고 잘라내는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온지 어언 반년이 넘었다. 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계약직 역무원으로나 재계약하겠다고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하던 철도청은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자 지난 12월 뒤늦게 재계약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승무원이 1년짜리 계약직으로 남아있는 한 이러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하기에 그녀들은 계속하여 싸우고 있다.

그러나 오늘, 오랜만에 만난 그녀들의 얼굴이 매우 어둡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설 연휴를 지니면서 함께 싸우던 많은 여승무원들이 '특채'공모에 응하게 되어버렸다는 것.

철도청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채를 실시하여 시험을 통과한 몇몇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근래 시행해오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여 그/녀들의 삶을 불안함으로 몰아가면서, 그중에 노력하는 몇몇은 구해준다는 저들의 저 시혜성 정책은 정말 기만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더욱이 그러한 정책을 통해 결국 비정규직은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인간들이라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점은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만적인 '당근'에서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노동이 아닌 스스로의 역능을 마음껏 발휘시키는 자유로운 노동을 위한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긴 것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한명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특채'는 빠르게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매력적인 경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새마을호 여승무원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함께 싸우던 동료들 빼앗겼다는 쓰라림과 속상함으로 어두워져있는 그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육투쟁을 통해 교육권을 쟁취하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학점 관리해서 원하는 전공을 따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것처럼 되어버린 학부제 시대 대학의 모습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만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희석시키는 이러한 기만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찔해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곳곳하고 영리한 그녀들이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근'이 결국 그녀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고 한명 한명을 고립되게 만들뿐인 '취약'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비관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었다.

내 또래의 나이이지만, 사회생활을 뒤늦게 시작하게 된 나보다는 훨씬 의젓해 보이는 그녀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스스로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들에 곳곳하게 맞서는 그녀들.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도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녀들. 그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곳곳해지고 용감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실 소위 명문대학을 나온 내가 그녀들을 이런 식으로 만나기란 어쩌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브랜드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브랜드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수준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있어 여승무원들과의 만남은 기차로 출장을 하면서나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도 (청년실업 400만 시대에 그러한 만남도 쉽지 않은 것이 되고 있지만^^) 결코 그녀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결코 그녀들의 깨끗하고 용감한 모습에 나 자신이 힘 받는 일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다니는 일터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라는 이름의 사회단체인데, 이름 그대로 이 땅의 불안정한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연대활동을 벌이는 곳이다. 불안정한 노동으로 삶이 통째로 불안정해진 그/녀들은 나와 같은 지지자가 있기에 보다 힘내서 싸움을 계속해나갈 수 있고, 그/녀들의 삶과 나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아는 나는 깨끗하고 용감한 그녀들이 있기에 보다 힘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행복하고 소중하기만 하다. 물론, 불안정한 노동은 사라져야 하니 불안정노동자들과의 만남도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그녀들은 조금 지친 모습이었지만, 다음번 만남은 보다 밝은 모습이기를 바라면서 서울역을 떠나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3·8 여성의 날인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친구들과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면 올해에는 화요일마다 서울역에서 만난 그녀들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동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겠다. 그녀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 다음 만남이 다시 설렘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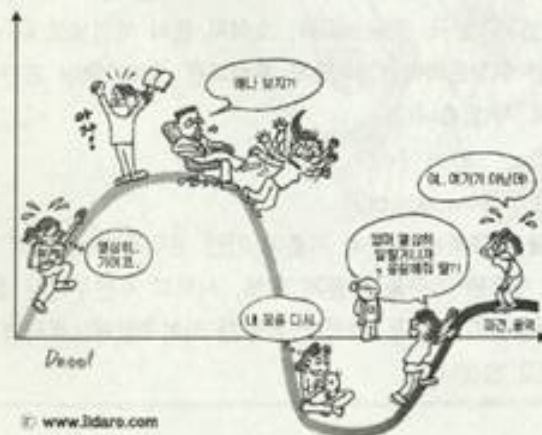
■ 전체 여성노동자의 70%,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뭐 길래?

비정규직은 회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 채용이 되지 않은 파견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견습사원이라고 불리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고용 보험은 물론 가입될 수 없고, 해고의 절차 또한 간편하지요. 아,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전체 노동자 비율 중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겠지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부족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회 진출은 점차 늘어가지만 여성들의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70%를 넘는 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소지가 훨씬 높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 시달리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있어도 쉽사리 항변하거나 대항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를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그 원인이지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런 관행과, 법, 제도에 의해 차별받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 Something more! 이런 곳은 어때요?

언니네 <http://unninet.co.kr>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는 여성주의와 관련한 기사와 칼럼,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동지를 틀고 잇는 곳입니다. 언니네에서 언니들과 함께 자유로운 숨을 쉬어보아요!

여성주의 사이버 저널 일다 <http://ildaro.com>

여성주의 저널 그.여.자.들.의.물.결 일다는 각종 뉴스와 사회, 문화, 생활, 경제 전반에 걸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말이죠. 여성주의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다의 매력입니다. 또한 여성 관련 소식과 행사, 여성운동의 흐름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징이지요.

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성폭력 상담과 해결을 위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유용한 것은 성폭력관련 정보들로, 특히 성폭력의 정의와 대처방안, 각종의 기획글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 <http://www.femart.co.kr>

1992년 이래로, 여성주의 시각 속에서 여성영화제, 연극공연, 여성미술제 '딸뽕들의 행진', 워크샵, 심포지엄 등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을 해온 여성문화예술기획의 홈페이지입니다. 영화, 연극, 미술, 교육, 소식지 등의 섹션으로 나누어져있는 이 홈페이지는 그동안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개최해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문화 예술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애여성 공감 <http://www.wde.or.kr>

공감은 장애여성을 배제하는 제도와 기준이 가진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사회의 주변부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알리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3.8 여성의 날 함께 만들어 가요!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인 1908년 3월 8일, 만화와 악취가 가득 찬 지하실에서 빵 대신 만지개를 먹으며 줄임도 잠깐 채 하루 14시간씩 일해야 했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급기야 한 피혁회사의 화재로 146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불에 타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자 그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분노에 찬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임금을 인상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외치며 투쟁하고 광장에 모인 군대와 맞섰다.

매년 3·8일에는 전 세계 여성들의 토론, 투쟁, 축제가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1920년대부터 3·8기념대회를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인한 여성의 급격한 비정규직화와 빈곤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와 사회구조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폭력들에 맞서기 위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감수성과

여성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여성의 날 문화제가 성신여대에서
있어요.

많은 새내기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참가 문의 : 문과대학 학생회 (2123-3647 / 2005Q@naver.com)